

경제간담회, 벤처 활성화 추진 과제 1분기 완료키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코스닥·제3시장 활성화 방안,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벤처 활성화 추진 과제를 1/4분기(1-3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 폐지에 정인 벤처확인제도의 대체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확대를 위해 3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증소 및 벤처기업 전용시장화, 가격 변동폭과 거래대상 확대, 상장관련 규제 정비, 3시장 거래대상 확대 등도 1분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분기 중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창투자 투자유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특법 개정이 추진되고 창투자 업무영역 확대와 성과보수 상한제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벤처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3시장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20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이 조성할 공동펀드와 산학협력단의 벤처기업 창업 허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주식교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기업 확대를 위한 벤처특별법 및 조특법 개정은 연내 추진키로 했다.

중기특위, 중소기업정책혁신 12개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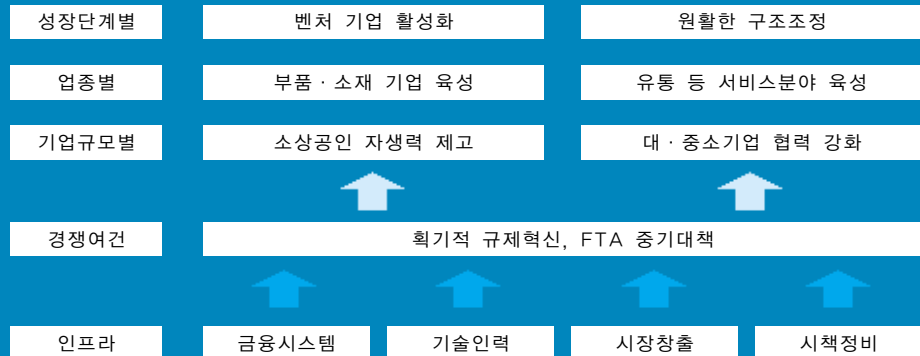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는 지난 17일 노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중소기업정책혁신 12개 추진 과제'는 ▲ 금융지원시스템 정비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기술 인력 지원 ▲ 부품·소재 산업발전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기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해 중기 정책자금을 창업·기술사업화·시설투자에 집중하고, 단순운전자금은 소기업·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나 기업 신용도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차등화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늘리는 등 우대키로 했다. 또한 1만개의 유망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자생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키로 하였다.

특히 전략적 부품·소재의 핵심기술로 오는 2010년까지 '세계 시장 선도 품목 100개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기술개발 확보전략을 차별화하여 중핵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을 통해 중소·벤처 부품기업에 19개 연구기관의 박사급 기술인력 300여 명을 1년간 파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를 위해 산업은행의 차세대 부품·소재산업육성자금 1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창업 및 산업기반기금 1000억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기업의 사업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5년 내에 3만명(공고생 2만명, 대학생 1만명)을 특화 양성하여 기술·기능인력 공급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현재 인력부족률 6.4%를 3%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정부, 벤처기업 인증제 만료 대책 마련키로

정부는 벤처기업임을 인증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벤처확인제도'가 올 연말에 폐지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그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만료시기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부 내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마련될 대안은 정부가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연장하는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에서 인정한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세제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부가 특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인증, 이들에 대해 각종 세제와 금융, 공간 임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년의 효력을 갖는다. 2007년 근거법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만 인증서를 발급, 오는 2007년 말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벤처기업이 사라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정해놓은 정책 방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의 시한을 5년 연장, 오는 2012년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고, 벤처인증제 역시 201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재정부와 산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산자부, 혁신클러스터 본격 추진

산업자원부(장관 이회택)는 지난 17일 과천시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내 7개 시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각 산업단지의 연구개발 역량의 보완을 위해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핵심연구역량 확충 ▲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및 정주여건 개선 ▲ 국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교류 등 4대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첫째인 올해에는 세부업종별, 기술분야별 소규모 산·학·연 협의체(미니클러스터)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미니클러스터별로 발굴된 애로기술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원주, 군산 등 7개 시범단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범단지별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청, 중기 기술상용화 159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 23일 올해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지난 해보다 60%늘어난 15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기술개발이란 중기청이 국방부, 철도청 등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이 수입대체품목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품이 개발되면 수요기관에서 구매해 중소기업의 개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상용화 기술개발 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3일까지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59억원)'도 상반기(70%)와 하반기(30%)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벤처창업자금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해 올해 35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벤처창업자금은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직접 신용대출 형태로 지원할 것이며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중고설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 및 매입, 경매에 의한 사업장 인수 등의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운전자금을 함께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리 4.9%(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창업자금지원 이외에도 창업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창업기업의 여건에 맞는 기업별 맞춤형 종합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산업 영위 지방소재 창업기업을 우대지원하며,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창업도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투사, 벤처투자 지난해보다 70%이상 확대할 계획

지난해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발표이후 창투사의 본격적인 투자심리 회복으로 금년도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2004년도 창투사 벤처투자 실적 및 2005년도 투자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벤처투자는 정부의 벤처기업지원확대 및 코스닥 활성화 등의 기대심리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4.3% 증가한 9830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3837억원), 부품·소재 등 제조업(2503억원), 엔터테인먼트(184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456% 중), 바이오(244% 중)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점차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기청은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창투조합 결성수요(88개, 1조2631억원)에 부응하는 정부재원의 효율적 배분, 연기금 및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창투사의 투자가 취약한 지방소재 벤처기업, 3년이하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출자비중 확대 등을 통해 창투조합 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자조합 존속기간 장기화(5년 → 7년)유도, 창투사의 투자조합 출자의무 비용 완화, 창투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창투사의 경영여건 개선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보, 신용장 없이 수출증기에 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23일 확정 발표한 '2005 보증운용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은 수출 신용장(L/C) 없이도 은행으로부터 원자재 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의 매출규모보다 미래의 사업전망과 수익성, 연구개발능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들의 대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신보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 한정돼 있는 네트워크론을 해외 수출 증기로 확대한 '글로벌네트워크론'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해외 수입상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주문서를 발행하면 이를 근거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수출증기에 원자재 구입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즉 수출 신용장 없이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연간 매출규모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이다.

이와 함께 신용장(L/C)을 발급하지 못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수출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글로벌네트워크론 보증제도는 상반기중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기술자문단사업 지원 신청 안내

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자문단 지원신청을 통해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고급 연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지원규모 : 8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25%이상, 현금)
- 지원요건 : 기술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상의 중소제조기업과 제조지원 서비스 영위업체(부품·소재전문기업 우대)
- 접수기간 : 2005. 1. 11(화) ~ 2. 28(월)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http://www.kotef.or.kr>) 및 지역연합회

기술수출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안내

기술거래소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인정되고,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지원마케팅지원 신청을 받는다.

- 신청요건 :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로서
 - ▲ 해외로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
 - ▲ 해외 합작법인 설립·투자 유치
 - ▲ 설비·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해외기술거래지원센터와 '수출마케팅' 자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함.
- 접수기간 : 2005. 1. 3(월) ~ 2. 4(금)
-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기반조성실 (02-6009-4365)

VD Scrap



▲ 2005년 1월 24일자 디지털 타임스 6면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국책은행들의 자금공급계획과 증권공정책자금 운용계획 등을 자세히 보도한 기획기사



▲ 2005년 1월 19일 조선일보 B1면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이 들뜬 분위기지만 2000년 벤처 버블 붕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시장원리에 따른 육성책이 필요하다. 이를 지적한 특집기사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개최

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남)는 2월 3일 아미가 호텔 7층 컨벤션홀에서 2005년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유년 새해를 맞아 여성벤처기업인들의 단결된 힘을 모으고 희망찬 출발과 새해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최홍건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 그간 여성벤처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이영남 회장이 물러나고 우암닷컴 송혜자 대표가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 문의 : 여성벤처협회 (02-6009-8500)

여성
벤처
협회

NEWS

특구예산, IT·BT에 40억원 지원

지난 18일 대전 EXPO과학공원내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경쟁력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과학기술부 최석식 차관은 2005년도 특구예산 100억원 중 40억원을 IT와 BT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차관은 창조형 국가혁신체계(NIS)를 구축해 혁신주도형 경제구도 확립을 강조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는 RIS(지혁혁신체계)와 NIS가 공존하는 구심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IT, BT, NT, RT, ET 등 핵심 분야별 전문클러스터를 육성해 대학 및 연구소,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2005년도 특구연구개발사업비 100억원 중 60억원을 지원본부에, 나머지 40억원은 IT와 BT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대전대 김선근 교수는 특구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창출·확산과 활용이라며 기술과 시제품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대
덕
벨
리

NEWS

나노로봇 기반 소자 개발

나노(1nm=10억분의 1미터)로봇과 같은 극미세 장치의 필수요소인 분자기계, 분자스위치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 소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포항공대 김기문 교수팀은 지난 1996년 처음 합성한 신물질(거대고리화합물)인 쿠커비투릴(cucurbituril)을 활용, 이를 고리처럼 썬 초분자체인 유사로탁산을 만든 후 용액의 pH에 따라 쿠커비투릴을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쿠커비투릴은 생체막과 유사한 리포솜(liposome)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포솜 표면에 유도 장치를 도입해 특정한 세포에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해 약물을 인체의 특정 부위에만 전달할 수 있는 나노장치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교수팀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확보한 12개 쿠커비투릴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크기·모양·결합물질이 각기 다른 쿠커비투릴 동족체와 유도체를 만들어 약물전달, 분리, 촉매, 바이오칩, 나노소자, 다공성물질 등의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
학
기
술

NEWS